

지상진료실

치아의 외상후 변화

서울치대 치과방사선학 교실

최 순 철

외상을 받은 치아를 외상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1) 치수괴사에 따른 치근단 병소

임상적으로 치관의 변색을 관찰할 수 있으며 치근단방사선투과상은 빠르면 외상을 받은 후 2주내지 3주후에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치의 경우는 6주내지 8주후에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치수관 소멸(pulp canal obliteration)

치근 형성이 완료되지 않은 치아에서 많이 관찰되며 초기에는 치수강부위의 크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치수관까지 폐색된다. 그러나 치관부의 치수강만 폐색되는

partial form도 관찰된다. 치수관이 소실되면 치수가 괴사되기 쉬우며 치수괴사는 치근단병변을 야기시키게 된다. 유치의 경우 치수관이 완전히 소멸된 치아라도 생리적 치근흡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3) 치근 흡수(root resorption)

External resorption과 internal resorption이 모두 가능하나 주로 external resorption이 관찰된다. 치질이 점진적으로 골로 대체되는 replacement resorption과 치수괴사를 수반하여 치근주위에 방사선투과상이 관찰되는 염증성 흡수가 있다.

이외에도 변연부 치조골이 파괴된 경우나 치근형성이 중단되어 치수관이 넓고 치근단이 closure되지 않은 경우등도 관찰된다.



<사진 1>

우측중절치: 치관부의 치수강은 거의 소멸되어 있으며 치수관도 좁아져 가느다랗게 흔적이 관찰된다. 치근단부에서는 방사선투과상의 병소와 불균일한 치근흡수가 관찰된다.



<사진 2>

우측중절치 : 파절된 치근단부의 치근은 치수관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으며 치관부와는 골로 분리되어 있다. 치관부 역시 치수강과 치수관이 거의 소멸되어 있다.

좌측중절치 : 염증성 치근흡수와 함께 치근막강이 넓어진 것이 관찰된다.



<사진 3>

좌측중절치 : 치관이 파절되어 있으며 치근단병소를 관찰할 수 있다. 치수관이 넓어져 있으며 치근단이 open된 상태로 남아 있다.